

# “내년 광주항쟁 40주년 민중들 이야기 늦출 수 없었다”

본보 연재 다큐소설 '광주 아리랑' 정찬주 작가·삽화 이정기 화가

정찬주 “5·18 정면으로 그린 소설… 고통스럽지만 행복해”  
이정기 “민초 역사는 미래의 유물… 소설 느낌 살리려 고민”



정찬주 작가 집필실 '무염산방' (이정기 작)

광주일보는 내년 창사 68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돌을 맞아 정찬주 소설가의 다큐소설 '광주 아리랑'을 지난 9월부터 연재 중이다. 정 소설가는 1980년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일별로 전개되는 광주 항쟁 기간 해당 날짜마다 매회 2화씩, 그리고 계엄군 만행이 극에 달했던 2-3일은 3화로 연재하고 있다.

정찬주 소설가와 삽화를 그리는 이정기 화가가 최근 화순군 이양면 상봉사 자락 '이불재(耳佛齋)'에서 만났다. 초면이었지만 지면을 통해 서로의 작품을 봤던 터라 두 사람 사이에는 이내 친근감이 들었다. 예술이라는 공통분모가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의 위력이다.

가을 초입의 이불재(耳佛齋)는 고즈넉하다. 산중의 가을은 도시보다 더 빨리 오는 느낌이다. 조금씩 물이 들기 시작한 나무와 주위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잔잔한 느낌을 준다. 이불재. 불어오는 바람에 귀(耳)를 씻고 부처(佛)의 경지를 맞보는 집(齋)이라는 뜻이 다함없이 좋다. 시시콜콜한 세상의 번다한 말들은 제만치 바람결에 사라져버릴 것 같다.

'집필중'이라는 사립문에 걸린 문구가 수행하듯 글을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예의 편안한 미소로 정 작가는 기자와 화가를 맞이했다.

올해는 정 작가가 서울 생활을 정산하고 정착한지 20년이 되는 해. 작가는 산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벗 삼아 창작에만 심혈을 기울인다. 세상사에 거리를 둔 전형적인 예술가의 이미지지만, 그렇다고 교류까지 차단한 것은 아니다. 그는 사립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에게 직접 차를 우려 차를 끓이고 담소를 나눈다.

정 작가는 “그림 속에서 화가의 고심이 많이 느껴진다”며 “내가 생각했던 각 지점의 장면과 그림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놀랄 때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이정기 화가는 다소 수줍은 표정으로 “혹여 제 그림이 선생님의 소설에 누가 될까 많이 부담이 된다. 광주의 역사는 우리 후손들 미래의 역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작가는 그동안 '전강에 비친 달', '법정스님의 뒷모습', '이순신의 7년'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냈으며 지난해에는 광주일보에 정찬주의 유럽예술기행 시리즈를 연재한 바 있다.

장성 출신의 이정기 화가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반추적시선 II' 등 수 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지난 2015년에는 제21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소설 '광주 아리랑'은 6화(5월 16일 '햇빛시위')까지 연재가 된 상태다. 소설은 다수의 인물이 등장하는 관계로 유니버스 형식을 띤다. 장편소설의 방식을 원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하되, 작가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가미했다.

“이번 소설 '광주 아리랑'은 다수 민중들이 끌어가는 이야기다. 날짜에 따라 주인공들이 달라진다. 시작은 단조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회오리가 치듯이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순간이 있다. 아마 5월 25일, 26일, 27일 쯤에는 그동안 나왔던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서사 전면에 나올 것 같다.”(정찬주)

“컬러를 절제하며 의도적으로 흑백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글과 그림의 이미지가 상통되는 어느 순간에는 과감하게 색을 쓸 것이다. 전체적으로 컬러를 제한한다 해도 소설의 느낌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이정기)

정 작가는 첫 회분을 화가가 어떻게 표현할까 궁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장가에 비친 눈동자”가 주는 강렬한 그림이 1화를 상징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설 전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장가에 드리워진 눈동자는 증언 외에도 당대의 진실을 집요하게 포착한다는 차원 높은 뜻을 담고 있다. 이 작가는 “우리의 모든 것은 미래의 유물로 남는다”는 점에서 광주의 5월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년 5월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대의 역사를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 아리랑’은 현대사의 비극을 가장 정치하면서도 극명하게 그려낸 소설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제는 광주민주항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할 분기점에 와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대학생, 군부와 교수, 종교인 등은 지속적으로 조명돼 왔으며 몇 년 전부터는 개인의 평전 등도 발간되고 있다.

정 작가는 “재조명이 있어 소설화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내년이 항쟁 40주년인데 당시 최대 피해자인 근로자와 빈민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명으로 다큐소설을 전개하는 까닭은 근로자와 빈민 또한 오늘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광주민주항쟁의 엄연한 실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소설을 구상하기 직전 정 작가는 올 2월에 인도에 다녀왔다고 한다. 그곳에서 호랑이 모양의 조각상을 구입해왔다고 말했다.

“요즘은 소설을 쓰면서 호랑이한테 물어뜯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글을 쓰는 것도 힘들지만 심리적으로 더 고통스럽다. ‘야만의 시간’을 통과해 들어가다 보니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심장이 뛰고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인다. 청심환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소설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정찬주)

“매회 삽화를 그리면서 핵심이 무엇인지 뽑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저 나름대로 고민의 극단까지 가본다. 그러다보면 번뜩 이미지가 떠오른다. 80년 광주를 겪은 이들이 우리의 부모, 형제자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이정기)

두 작가의 대화는 집필실에서 나와 작은 정원을 거닐면서도 계속됐다. 예술가 특유의 이심전심이 느껴졌다.

사립문을 나서는데 “소설을 쓰는데 게으름을 피우면 호랑이 조각상에 물어뜯길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는 정 작가의 말이 강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담소를 나누는 정찬주 작가(오른쪽)와 이정기 화가.

## 이미지가 그림으로, 그림이 장신구로

송숙남 12번째 개인전, 23일~11월20일 서울 흰물결갤러리

송숙남(광주대학교 패션·주얼리학부 교수) 작가는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회화와 판화를 공부한 그녀는 화려하고 개성 있는 아트 주얼리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송 작가의 30년 작업결과물인 회화와 판화, 주얼리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시대에 따른 작품의 변화와 함께 각 장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영향을 미쳐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획이다.

송숙남 작가 12번째 개인전이 오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 서초동 흰물결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판화와 드로잉, 아크릴을 비롯해 다양한 복합재료를 활용한 회화, 다채로운 천연보석과 18K를 소재로 제작된 아트주얼리 1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송 작가의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리듬감과 역동성이다. 루비·아쿠아마린·오판과 금 등 귀금속을 소재로 한 주얼리 작품은 단순한 장식의 의미를 벗어나 곡선과 직선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며 변화무쌍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또 단색의 목판화에서는 깊은 판조의 기운이 느껴지며 화려한 색감의 추상 회화 작품도 눈길을 끈다.

송 작가는 “그림과 판화, 브로치 위주의 장신구들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회화의 평면성에서 벗어나 공간적인 장식으로 최대한 쉬



'seed'

운 언어로 풀어냈다”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섬세한 이미지의 흐름이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이 장신구로 다시 확장된 작품들”이라고 말했다.

홍익대와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송 교수는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에서 판화 과정을, 미국 캔자스대학교에서 석판화 과정을 공부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이사, 한국 디자인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개막행사는 23일 오후 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작가의 더 깊어진 시선 '단색풍경'

조정태 9번째 개인전, 27일까지 예술공간 집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을 응시하는 조각가 김숙빈의 얼굴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임남진 작가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것은 어떤 풍경일지 궁금해진다. 서양화가 조정태 작가가 잡아낸 동료 작가들의 모습은 강렬하다. 거칠면서도 정교한 붓질로 표현해낸 순간의 표정들이 인상적이다.

그림으로 사회에 다양한 질문을 던져온 조정태 작가의 9번째 개인전이 전남여고 앞 예술공간 집에서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전시 주제는 '단색풍경(單色風景)'. 붉은색 등 강한 색감을 거침없이 활용해온 조 작가가 이번에는 전시 제목처럼 많은 색을 털어내고, 몇 가지 단색만으로 인물과 풍경들을 담아냈다. 전작보다는 온화한 작품 분위기에서 오히려 더 깊어진 작가의 시선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물과 풍경 등 작가 주변의 일상을 담은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박소빈, 박홍수 작가 등 지인들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작품들과 함께 이름 모를 잡초부터 자욱한 안개 낀 바다, 스쳐지나가는 부엉새, 어느 골목길에선가 마주한 담벼락까지 특별한 것 없는 풍경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던 중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전'을 관람한 조 작가는 대가들의 작품도 좋았지만 당대를 살았던 이름 모를 소소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더 마음에 와 닿았다. 그 작품을 통해 미디어나 도판으로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감지했고, 지금의 관점으



'예술가의 초상-김숙빈 작가'

로도 손색이 없는 대상을 표현하는 시선이나 화면 구성에 감동을 받았다.

화려하지 않은 단조로운 색채를 매개로 작가 특유의 표현력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시선을 담아낸 이번 작품들은 작가의 말처럼 “자본 축적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 주변을 돌아볼 사색의 공간이 존재할 틈조차 없는” 우리 시대에 작은 섬표같은 사색의 기운을 전해준다.

민예총, 민미협 회원으로 사회적 발언을 해온 조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를 지냈고 민미협 회장으로 오월 기념전 등을 기획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따뜻하고 전원적인... '김홍재의 브람스' 공연

광주시향, 24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김홍재의 브람스' 공연을 갖는다.

이날은 베토벤, 멘델스존의 작품과 함께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불리는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브람스의 전원 교향곡'이라 불리며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가 특징적인 '교향곡 제2번'을 연주한다.

이날은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이 협연자로 출연한다. 스위스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그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퀸엘라지베스', '차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

이리프스키'에서 입상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 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 10% 할인
- 음료·주류 .....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